

# 18 일차

##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낙동강 주변의 고지대 ‘마삿등’ 사람들은 공공 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고통을 겪는다. 황거칠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우물을 파서 마을로 물을 끌어 쓰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호동팔은 그 산이 자신의 형 호동수가 매입한 산이므로 수도 시설을 철거하라고 한다. 황거칠 씨는 재판에서 진 후, 강제로 우물을 헐고 수도 시설을 철거하던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다.

일행이 구류장에서 풀려 나왔을 때는 산에 있는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됐던 다섯 개의 우물은 호동팔 측에 의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한 동팔이가 ‘마삿등’ 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죽일 놈!’

하고, 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판에 뜻밖에도 동팔이 측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 왔다. 용건이 또 걸작이었다. - ㉠ ‘마삿등’ 일대의 배수 시설을 자기에게 팔든가(물론 헐값으로), 정농기 싫으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아니꼽게도 이쪽의 약점을 노린 수작이었다.

“가거라, 이 개 같은 놈아! 밥을 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고 다녀?”

황거칠 씨는 벼락같은 소릴 쳤다. 차라리 거저 내버렸음 내버렸지, 동팔이에게 시설을 판다든가, 더구나 공동 경영 따위 쓸개 빠진 것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다. 교섭을 왔던 사람이 코를 싸고 돌아간 뒤에도 그는 내쳐 주먹을 떨어 댔다.

‘누굴 자기 같은 놈인 줄 알았든가? 뻔뻔스런 놈 같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다.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매일같이 많은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콩나물 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의 깃발을 늘어놓고 소주랑, 막걸리, 청주까지 만들어서 파는 ‘두꺼비집’ 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동팔이와 특별한 관계 - 가령 그의 목수 허드렛일을 맡아 있다던가, 인척 관계인 몇몇 사람들도 그 물을 쓰기 시작했다.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해 오던 황거칠 씨는 드디어 ㉢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

‘어디 제 놈들의 산이 아니면 물이 없을까!’

이튿날부터 황거칠 씨는 예의 쇠 작대기를 찾아 들고 집을 나섰다. 수정암 훨씬 뒤 굴밤나뭇골이란 데 가서 새 수원을 찾기로 했다.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국유 임야였다.

(중략)

그날 밤 그는 실근이를 비롯해서 가까이 지내는 통반장 몇 사람과 저번 날 일로 말미암아 함께 구류를 살던 청년들을 자기 집으로 불렀다.

먼저, 동팔이와 화해를 앓음으로써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물 곤란을 주고 있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사과 겸 말하고, 그날 낮 산을 돌아본 얘기와 자기의 ㉣ 새로운 계획을 비쳐 보았다.

“한번 진다는 건 두 번 질 장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지다가 지다가 지금 같은 꼴들이 된 게 아닐까요? 내가 그런 업두를 낸 것은 결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황거칠 씨는 자못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평소 말을 잘 안 하는 그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새삼스레 어떤 희망이라기보다는 목은 분노라도 되살

아나는 듯 눈마저 이상스럽게 이글거리는 것 같았다.

“됐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합니다. 그까짓 새미 댕 개썰, 여러 사람이 가문 하리면 다 안 파겠능가요. 똥과리의 원수를 어서 갚아야 잠이 오지, 운……”

동팔이를 때렸다가 혼이 난 인호란 청년이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동조를 했다.

소주를 큰 걸로 두병이나 사 온 황거칠 씨의 할멈도 못내 기쁜 표정을 지었다.

“호씨 형제들의 심보도 심보지만, 산에 나오는 물꺼덩 마음대로 몬 목구로 하는 법도 더럽지요!”

그녀는 새삼 억울하게 당한 일을 생각하곤 이렇게 빈정대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난 뒤, 황거칠 씨의 할멈은 북창 위 시렁에 모서 둔 세존 단지 곁에, 영감이 산에서 가져온 물풀을 얹어 두고는 성주 세손에게 한참 동안 기도를 올렸다.

쇠뿔도 단김에 뺨다는 격으로 날이 새기가 바쁘게 ‘마삿등’ 남정들은 ㉤ 마을 뒤 언덕배기로 모여들었다. 실근이란 통장이 지난밤 황씨 집에서 얘기된 계획을 말하자 죄다 물 곤란을 겪던 터이라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거 참 잘 생각했소. 더러 놈이 가져오는 물 목을 뺨 했당 이!”

“그렇기 말입더.”

모두 잘코사니\*를 치며 돌아갔다. 그것은 비단 호동팔이가 미워서만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마삿등’ 따라지 - 그러나 악바리들은 조반을 끝내기가 바쁘게 팽이랑 삽들을 들고, 더러는 황거칠 씨 집 앞길에 모여 들고 더러는 바른총으로 굴밤나뭇골로 올라갔다. 골은 거기서 십 리나 떨어져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는 호동팔의 인부들이 열심히 ㉥ 파이프를 묻고 있었다.

“우리들 것 다철라, 단당이 하소!”

동네 사람들은 지나오면서 동팔이의 인부들을 보고 이렇게 주의를 시켰다. 그들은 황거칠 씨의 것을 ‘우리들 것’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그만큼 그 수도 시설을 아끼는 심정들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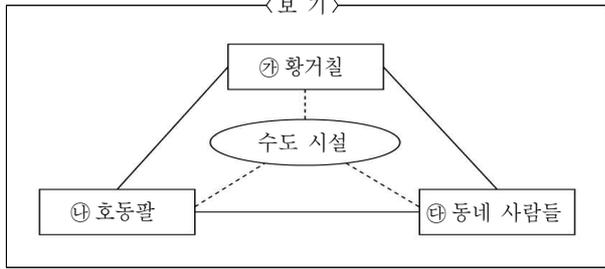
\* 잘코사니 : 고소하게 여기는 일. 주로 미운 사람이 불행을 당한 경우에 하는 말임.

- 김정환, 「산거족(山居族)」 -

1.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의 정황을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장면마다 서술의 초점을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제시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2. 위 글의 인물 간의 관계를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신의 수도 시설을 철거하게 만든 ㉡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심리에서 새로운 수도 시설을 ㉡의 소유가 아닌 곳에 설치하려고 한다.
- ③ ㉠가 ㉡에게 한 제안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 ④ ㉠은 ㉡가 제시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 ⑤ ㉠은 ㉡의 의견에 동조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새 수원'을 찾아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 ② '국유 임야'를 매입하여 '우물'을 파는 것이다.
- ③ '호동팔의 물'을 쓰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이다.
- ④ '호동팔'의 '시설'을 빌려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 ⑤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다 쓰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4. a~c 중, '우리들 것'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5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위승상의 차남 위진의 부인 채씨는 장남 위윤의 부인 반씨를 모해한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 양부인에 의해 친정으로 쫓겨난 채씨가 부친을 움직여 반씨의 남편 위윤, 부친 반공을 유배 보낸다. 이에 양부인은 득병하여 죽고 위진은 채씨를 불러들인다. 채씨가 반씨와 그녀의 아들 위홍을 모함해 집에서 쫓아내려 하자 반씨 모자는 양부인 묘 근처에 거처를 정한다.

일일은 홍이 서당에서 글을 읽는데 홀연 한 사람이 청사도복(靑絲道服)에 청사자(靑獅子)를 몰아 들어오거늘, 홍이 마당으로 내려와 맞이하여 예를 마치고 살펴보니, 풍채가 표일단야(飄逸端雅)한지라. 마음에 기이하게 여겨 공경 문왈,

“도인께서 누추한 곳에 임하시라 미천한 아이를 찾으시니 황공하여이다.”

도인 왈,  
“지나다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한번 보고자 왔거니와, 성명이 무엇이뇨.”

대왈,  
“위홍이로소이다.”

도인 왈,  
“듣던 바와 같도다.”

홍 왈,  
“그런즉 이적선이시니이까.”

도인 왈,  
“그러하다.”

홍 왈,  
“선생을 기다린 지 오래로소이다.”

도인 왈,  
“양부인이 옥경(玉京)에 득죄하고 인간에 적격하였다가 도로 광한전(廣寒殿)에 올라 계시니, 군의 모자를 잊지 못하여 태을(太乙)께 청하여 나를 보내었으니 세상 사람이 알게 말라.”

하고, 인하여 밤마다 와서 글을 가르치니 일 년 만에 고금(古今)을 통하니, 반씨가 감격하여 사례하고자 하되 밤에만 왕래하니 얼굴을 보지 못할러라.

화설, 채씨는 홍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선관(仙官)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왈,

“반씨가 삼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이히 알았더니, 원래 [A]이 같이 음일(淫佚)\*한 행사가 낭자하니 이제 바빠 처치하소서.”

위진이 대로하여 이날 밤에 사내종 이십여 인을 보내어 반씨 모자를 죽이려 할새, 이에 분부 왈,

“너희는 반씨의 여막에 가 불을 놓고 반씨 모자를 불의에 들이치면 마땅히 상을 후하게 하리라.”

하니, 사내종이 저마다 좋아서 뛰어 일시에 가니라.

차시에 반씨는 경히 혼미하여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非夢似夢) 간에 양부인이 큰소리로 왈,

“오래지 않아 액이 당도하거늘 무슨 잠을 자느뇨.”

반씨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枕上一夢)이라. 또 이르되,

“어서 피하라. 만일 지체할진대 가히 면치 못할러라.”

반씨 대경하여 급히 홍을 불러 이 말을 이르니, 홍이 놀라 왈,

“이는 반드시 왕모의 혼령의 가르침이라. 바빠 피하시이다.”

하고, 모친을 불러 한 피를 넘어가 부인을 바위틈에 앉히고 피에 올라 바라보니, 별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 모친께 고왈,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찾으니 매우 의심스러운지라. 이곳에 있지 못할지니 멀리 가사이다.”

하고, 모친을 인도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 천지가 아득하

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라.

이때 문득 한 노인이 이르러 문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관대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피하느뇨.”

홍이 대왈,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우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노인이 웃어 왈,

“공자가 과도히 놀랐도다.”

하고, 인하여 소매 안으로부터 줄 같은 것들을 내어주며 왈,

“모자가 하나씩 나눠 먹으라.”

하니, 홍의 모자가 받아 먹으며 문득 정신이 쇠락\*한지라.

정히 사례코자 하더니, 노인 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神靈)이더니, 양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하고 문득 간 데 없거늘, 홍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사례하고 모건을 모셔 양강(揚江)에 이르니, 부인이 통곡하여 왈,

“친정이 비록 가까우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村中)에 들어가리오.”

홍이 위로하며 모셔 외가 반부(潘府)를 찾아 나아가니, 유부인이 반씨를 보고 크게 반기며 홍이 이같이 장성하여 수미(秀美)함을 보고 반기는 중, 반공과 위상서가 유배됨이 슬피 모녀가 서로 위로하더라.

- 작자미상, 「반씨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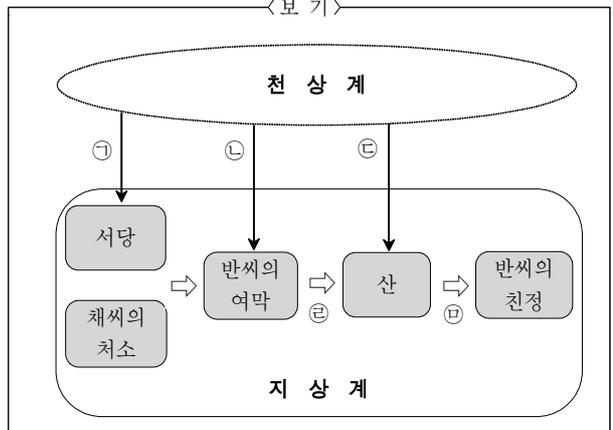
\* 음일(淫佚) : 음란하고 방탕하게 놀.

\* 쇠락(灑落) :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함.

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반씨는 위홍과 달리 이적선을 만나지 못했다.
- ② 위홍은 도적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 ③ 위진은 사내종을 시켜서 반씨 모자를 해치려 했다.
- ④ 반씨 모자는 산에서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다.
- ⑤ 반씨는 지금의 처지로 친정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6. 위 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천상계 존재가 지상계 인물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과 관련이 깊다.
- ② 천상계 존재가 위협에 처한 지상계 인물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이 ㉡과 ㉢에서 각각 다르다.
- ③ '채씨의 처소'에서 일어난 일은 지상계 인물들의 이동인 ㉣과 ㉤의 원인이 된다.
- ④ 지상계 인물의 공간 이동인 ㉤은 천상계 존재가 피신처인 '산'을 안내해 준 ㉡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 ⑤ ㉠, ㉡, ㉢에서는 모두 천상계 존재인 '양부인'이 사건 전개에 개입하고 있다.

7. [A]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부추기고 있다.
- ② 상황을 가정하여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 ④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8. ㉤의 상황에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구사일생(九死一生)
- ② 동상이몽(同床異夢)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 ④ 설상가상(雪上加霜)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믐  
 ㉠ 밭이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A]

걸어온 길가에 쫄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짊어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B]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 밭이면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줄음줄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C]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C]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피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 아롱범: 표범.  
 \* 우라지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 마우재 말: 러시아 말.  
 \* 귀성스럽다: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

9.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인화를 통해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시어의 반복을 통해 시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는 윗글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이 작품은 이국땅을 떠도는 화자가 블라디보스톡이 가까운 항구를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항구에서 화자는 후회 없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화자가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기 힘든 현실을 인식하며 시상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 시의 짜임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상을 말해 볼까요?

[A]	[B]	[C]
현재의 부두	→ 과거 회상 속 고향	→ 현재의 부두

- ① [A]의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를 통해 지나온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어요.
- ② [B]의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을 통해 어린 시절 화자에게 우라지오는 동경의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 ③ [C]의 '얼음이 두껍다'와 '가도오도 못할'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함을 추측할 수 있어요.
- ④ [A]의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C]의 '날고 싶어 날고 싶어'를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어요.
- ⑤ [C]의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를 통해 [B]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화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1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드러나는 시간, ㉡은 정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과거를 성찰하게 하는 시간, ㉡은 가슴 아픈 과거를 잊게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현재 화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시간, ㉡은 과거 속 화자의 기대가 높았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 ㉡은 모두 화자의 심적 갈등을 유발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 ㉡은 모두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膠溪邊)\*에 금린어(錦鱗魚)\* 1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閒暇)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는 이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홀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히 남다\*.  
 ㉡ 샓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 탁료계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  
 \* 금린어: 싱싱한 물고기.  
 \* 역군은이샀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다.  
 \* 홀리: 흐르도록.  
 \* 자히 남다: 한 자가 넘는다.  
 \* 누역: 짚으로 만든 비옷.

(나) 된 서리 빠진 후의 산 빛이 금수(錦繡)로다.  
 ㉢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의 펼쳐져 있는가.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문혔거늘  
 조물(造物)이 야단스러워 빙설(冰雪)로 꾸며내니  
 ㉣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펼쳐져 있구나.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즐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은 누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 쓸러노.  
 아침이 낮브거니\* 저녁이라 싫겠느냐.  
 ㉤ 오늘이 부족(不足)하니 내일(來日)이라 유여(有餘)하라.

- 송순, 「면양정가(俛仰亭歌)」 -

\* 만경: 아주 많은 이랑.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이르는 말.  
 \*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꾸민 궁궐과 대.  
 \* 옥해은산: 옥으로 된 바다와 은으로 된 산.  
 \* 안저: 눈 아래.  
 \* 낮브거니: 부족하니.

1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강호사시가」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화자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조화와 함께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치적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

-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화자의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군.
- ② 각 수 중장의 '이 몸이 ~해움도'는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③ 각 수 중장의 '역군은(亦君恩)이샀다'는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지어 한 말이라 할 수 있군.
- ④ 화자는 걱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군.
- ⑤ 화자의 공적인 삶이 사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게 된 이유는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 때문이군.

1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검소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에 비유하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미화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대구와 설의를 활용하여 덧없이 흘러보낸 시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빠른정답.**

3	4	1	1	4
4	1	4	5	4
3	4	5	5	

[1~4] (현대소설) 김정환, 「산거족」

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정황을 모두 알고, 이를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① 과거에서 현재의 시간적 순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2. [출제의도] 인물 간의 관계로 작품 감상하기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으로 보아, 호동팔이 수도 시설을 설치한 것은 황거칠의 제안 거부에 대한 반발 심리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호동팔이에게 어떤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호동팔이(㉠)이 동네 사람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황거칠 씨가 밝힌 ‘새로운 계획’은 새 수원이 있는 굴밤나무골에 샘을 파서 마을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은 ‘새 수원’을 찾아야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우리들 것’은 황거칠 씨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 설치한 배수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들 것’에 해당하는 것은 ‘마삿등’ 일대의 배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와 ㉡는 호동팔이 마을에 설치하는 배수 시설을 의미한다.

[5~8] (고전소설) 작자미상, 「반씨전」

5.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반씨 모자가 채씨와 위진이 해치려는 계락을 피해 산으로 피신하여 노인(신령)을 만나 도움을 얻게 된 것은 양부인의 청에 의한 것이지만 반씨 모자가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것은 아니다.

6. [출제의도] 서사 구조 파악하기

반씨의 꿈에 양부인이 나타나 위험에 처했음을 알려 줌으로써 반씨 모자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부인이 산이라는 피신처를 안내해 준 것은 아니다.

7.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의 특징 파악하기

[A]에서 채씨는 남편인 위진에게 반씨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반씨 모자를 처치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8. [출제의도] 한자 성어 적용하기

㉠는 여막을 벗어나 산곡으로 들어간 반씨 모자가 깊은 밤에 길을 잃은 데다 몸의 힘까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의 뜻을 지닌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적절하다.

[9~11] (현대시)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청자 또는 독자가 이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밤이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에 추상적 대상인 ‘밤’이 손을 흔든다고 구체화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②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에서 ‘날고 싶어 날고 싶어’를 반복하여 고향에 가고 싶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③ 이 시는 ‘우라지오’라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그리움의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삼살개 짚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설달 그림’이라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1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 시구라 할 수 있다.

① <보기>의 내용 가운데 ‘화자는 후회 없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설명에 해당하는 시의 구절은 ‘걸어온 길가에 찢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이다. 여기서 ‘뉘우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 왔다는 것을 드러낸다. ②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에 어머니로부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줄음줄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우라지오’라는 곳을 동경했음을 보여준다. ③ 이 시의 화자는 고향에 가고 싶지만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꺼워서 ‘가도오도 못’하는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함을 추측할 수 있다. ⑤ [B]는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과거 회상의 내용이다. 그리고 [C]의 앞부분에서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라는 표현에는 [B]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11.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 이해하기

㉠은 이국땅에서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으로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부두'로 온다. 따라서 ㉠은 현재 화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은 어머니에게 '우리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므로 과거 속 화자의 기대가 높았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① ㉠에는 자연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에는 화자의 과거를 성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은 추억 속의 시간이므로 가슴 아픈 과거를 잊게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다. ④ 화자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 화자의 심적 갈등을 유발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은 추억 속의 시간이므로 화자의 심적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 시간이므로, 화자가 ㉡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은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시간이므로 화자가 ㉠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없다.

[12~14] (고전시가)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송순, 「면양정가(倓仰亭歌)」

12. [출제의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사계절에 따른 풍류를 즐기고 있고, (나)의 화자는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며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거나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가)와 (나) 모두 화자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②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연시조의 내용과 구조 이해하기

(가)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세종 대에 지어진 작품이다. 화자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는 작품에서 찾을 수 없고, 화자의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조화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라는 근거도 작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강호 자연에서의 개인의 풍류와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의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이 몸이 ~해움도'에서 '~'에 해당하는 내용은 초장과 중장에서 제시한 강호 자연에서의 화자의 풍류와 흥취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이 ~해움도'가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다'는 화자가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군은이샷다'를 화자가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지어 한 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는 <보기>의 설명을 볼 때, 화자가 걱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하기

㉠은 '오늘이'와 '내일이라', 그리고 '부족하니'와 '유여하라'가 각각 대구를 이루고 있고, '유여하라'에서는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덧없이 흘러보낸 시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은 대구와 설의를 활용하여 경치를 감상하느라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① ㉠은 '강과'를 '유신'하다 하여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은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는 '삿갓'과 '누역'을 사용하여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겨울의 안빈낙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검소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은 누렇게 익은 곡식의 모습을 '황운'에 비유하여 풍성하게 익은 곡식들이 넓은 들판에 펼쳐진 모습을 통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에 비유하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은 '경궁요대', '옥해운산'과 같이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미화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강조하고 있다.